미얀마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미얀마 선교사도 아니고 미얀마 땅을 밟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얀마 선교사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쿠테타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달간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와 사랑의 나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홍보하고 동원하는 일이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미얀마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동역자들도 미얀마 땅의 주권자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포해 주시고 회복와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 마다 저녁 8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 리수족을 위해 한 평생 바치신 O.J.프레이저 선교사님께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답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도 기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KOSIN PRESBYTERIAN MISSION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통일선교원

인도소식

메스컴을 통해서 인도의 코로나 소식을 접하고 계실 줄 압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보내오는 소식들은 더 참혹하며 어려운 현실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2만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와 자녀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을 받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산소통 공급이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여 저희 막내 학교 학부모인 선교사님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도 땅의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인도로 돌아가는 지은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은이는 8월 학기에 인도로 복귀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1년간 코로나로 한국에서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만류하지만 굳은 의지로 인도행을 결심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인도에서 자라 아마 인도가 더 편하고 인도에 친구들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아무튼 부모인 저희들은 저희 막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도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비자 발급과 복귀 비행편 그리고 학교 생활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

KPM 카카오 채널

KPM현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Kakao Channel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작가가 아닌 탓에 매주 새로운 글 적는 일이 쉽지 않지만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게 전해야 겠다는 마음에 제작 중입니다. 연말까지 맡겨진사역 잘 감당하고 선교지로 귀임 할 수있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선교지로 복귀

저희는 본부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위해 2년 4개월간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이제 12월까지 7개월여 남은 시간 잘 수종들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로 돌아가고 싶은데 비자와 여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의 비자 상황을 볼 때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가끔 인도의 사역자들과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서로의 근황을 묻을 때 마다 “Sir 언제 인도 오나요?”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참 보고 싶고 인도가 그립습니다. 푸네 선교사들이 잠시 대전에 와서 저희를 방문합니다. 함께 했던 즐거웠던 추억을 나눌때면 당장이라도 인도에 가고 싶을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다리던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가는 길도 순족히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6월8일 대전 오정동 선교사 촌에서

서근석 이정순 여경 혜민 지은드림